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 (5)

梁 啓 超 著
沈 暉 俊 譯

第五章 僞書識別을 評價

僞書를 識別해 내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다만 識別 以後 반드시 僞書를 불살라 버릴 必要는 없는 것이다. 事實 어떤 僞書는 불살라 버려도 괜찮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唐宋 以後의 사람들이 僞作한 古書같은 것이다. 唐 以前 或은 漢 以前의 僞書는 도리어 大端히 貴重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니 달리 處理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로서는 책은 결코 虛空에서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모름지기 많은 書籍을 參考했을 것이므로 假字 속에도 가끔 珍다운 寶貝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類書로서 매우 해줄 수 있다. 戰國人이 僞造한 책은 秦始皇 焚書이전의 資料를 반드시 保存하고 있을 것이고, 漢人들이 僞造한 책은 董卓의 焚書 以前의 資料를 반드시 保存하고 있을 것이고, 晉人이 僞造한 책은 『八王之亂』 以前의 資料를 반드시 保存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僞造한 그 사람들은 焚書 以前의 人物들로서 後人에 比해서 책을 輕視 많이 보아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例컨대 僞古文尙書는 至極히 널리 資料를 蒐集했고 그 出處도 거의 찾아 냈으며 아직도 若干은 찾아 내지 못한 것도 있다. 이와같이 採集됨으로 해서 亡佚된 圖書는 도리어 僞古文尙書덕택에 後世에 傳해지게 되었다. 또한 列子같은 것은 僞書이고 그 안의 楊朱篇도 어떤 사람은 懷疑하고 있다. 그러나 張湛이 列子를 僞造 할 때는 누구도 敢히 當時에 楊朱의 學說을 收錄 한 다른 책이 없었다고 敢히 장담할 수 있겠는가? 또 누가 敢히 穆天子傳을 剽竊해서 周穆王編을 만든 것 같이 張湛이 그 책을 표절해서 楊朱篇을 만들지 아니 하였다고 장담 할 수 있겠는가? 지금 楊朱의 學說은 列子の 이 篇을 除外하고는 달리 아무런 參考資料가 없다. 이 篇은 당연히 貴重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僞書는 類書로 보고 상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功은 오로지 古書를 存續 시킨 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僞書의 첫째 功用이다.

僞書의 둘째 功用은 古代의 神話를 保存하고 있는 점이다. 神話를 가지고 歷史를 본다는 것은 勿論 不可한 일이다. 다만 神話는 古代 民衆의 心理를 表現 할 수 있는 것이니 결코 輕視 할 수는 없다. 또한 許多한

古代文化는 따로 參考할 資料가 없는데 우리들은 神話의 研究로부터 많은 暗示를 얻어서 理解를 增進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學者들은 古代 民族의 神話를 專門的으로 研究하는 사람도 있다. 僞書 속에 讖緯類엔 古代의 神話를 적지 않게 收錄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것을 小說읽는 셈 치고 읽어도 古代의 文化와 古代 民族의 心理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僞書의 셋째 功用은 古代의 制度를 保存한데 있다. 周禮만 하더라도 비록 이것은 결코 周公이 지은 것은 아닌 僞書이지만, 이렇게 精密한 政治體制와 雄壯한 計劃은 春秋 以前의 사람들은 꿈에도 想像치 못하던 일일 터이니 반드시 戰國時代에 많은 政治體制를 參考하여 長點을 取하고 短點을 버린 후에 책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戰國時代의 政治體制는 이 僞書의 德澤으로 保存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僞造한 사람은 비록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戰國末 乃至는 漢初의 人物들임에 틀림 없다. 이 者들의 理想이 책속에서 按排되어 들어간 것이 自然 많은 것이지만 이러한 理解의 政治體制 또한 모두 時代의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理想을 感服하고 또 그를 따라서 當時의 政治體制를 探知 할 수도 있다. 우리들이 周禮를 周公時代의 政治體制로 보는 것은 틀린 일이며 周禮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周禮에 의해서 戰國時代부터 漢初에 이르기까지의 政體를 研究한다면 周禮는 말 할 수 없이 貴한 것이 된다. 이와같이 古代制度를 保存한 僞書가 실로 많다. 다만 우리들이 이를 잘 쓰는가 못 쓰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또 古代思想을 保存하는 一種의 功用도 僞書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例컨대, 列子와 같은 것은 우리가 만약 列禦寇의 思想을 본다면 틀린 일이지만 만약 張湛의 思想으로 본다면 더 좋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老子와 莊子를 함께 取扱한다면 亦是 틀린 일이지만 만약 王劉의 老子注와 何晏의 論語注를 함께 놓고 본다면 또 價値있는 일이다. 또한 起信論과 楞嚴經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印度의 佛教思想을 研究한다면 眞實로 잘못이지만 만일 여기에 根據하여 中國化한 佛教의 思想을 研究한다면 또 至極히 重要한 資料가 된다.

이러한 것들을 僞作한 사람들은 비록 다른 時代의 다른 人物을 假託했지만 우리들은 그의 이 말을 따르지 말고 다만 그들의 假面을 벗겨 그의 眞面으로 돌려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僞作한 證據를 指摘하여 그의 罪相을 宣布 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팔아 먹은 家財를 돌려 주고 確實한 批評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많은 僞書는 모두 有用한 것이며 僞造한 사람들의 숨겨진 思想도 宣揚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든 네가지 點으로 미루어 보아 僞書는 許多한 點이 分明히 거뒀지만 그대로 아주 큰 價値도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價値없는 部分과 區別해 보아야 한다. 다만 僞書의 眞僞와 그 年代는 確實히 證明하기전에 먼저 그 價値를 評價하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의 總編만은 여기서 끝 맺는다.)

宋·胡·姚 三家가 論한 古書 對照表

諸 子 辨		四 部 正 譌		古 今 僞 書 考	
判 別 된 書 名	判 別 된 말	判 別 된 書 名	判 別 된 말	判 別 된 書 名	判 別 된 말
鶡子	弟子 記한것 漢儒 補綴	鶡子	僞殘	鶡子	僞
管子	管仲 自作 아님	管子	眞僞가 相雜	管子	眞·僞가 섞였음
晏子	晏嬰 自作 아님	晏子	同上	晏子春秋	後人이 嬰行事의 行事를 모아 만든것
老子	疑				
文子	計然의 著 아님	文子	駁雜	文子	全僞作 아님
關尹子	僞	關尹子	僞	關尹子	僞
亢倉子	僞	亢倉子	僞益	亢倉子	僞
鄧析子	眞				
鶡冠子	眞	鶡冠子	僞·眞이 섞였음	鶡冠子	僞
子華子	僞 後人이 精粹를 모음	子華子	僞	子華子	僞
列子	眞 後人이 精粹를 모음	列子	眞·僞가 섞였음	列子	僞
曾子	曾子 自作 아님				
言子	言偃 自作 아님				
子思子	子思 自作 아님				
慎子	眞 盜跖漁父讓王은 後人이 勸入 한것 같음			慎子	僞
莊子	眞			莊子	眞·僞가 섞였음
墨子	眞				
鬼谷子	眞	鬼谷子	僞	鬼谷子	僞
孫子	眞	孫武	疑心스럽지 않음	孫子	作者未詳
吳子	眞	吳起	戰國人이 議論을 모아 엮음	吳子	僞
尉繚子	眞	尉繚		尉繚子	僞
尹文子	僞		無可疑	尹文子	僞
商子	眞			商子	僞
公孫龍子	眞			公孫龍子	僞
荀子	眞				
韓子	眞				
燕丹子	僞				
孔叢子	僞	孔叢子	眞·僞作으로 疑心됨	孔叢子	僞
淮南鴻烈解	眞				
揚子法言	眞				
抱朴子	眞	抱朴子內外篇	眞		
劉子	劉晝 作 아님	劉子新論	劉晝 作 아님	劉子新論	作者未詳
文中子	僞	文中子	眞僞가 相雜	文仲子	僞
天隱子	疑				
玄眞子	眞				
金華子	眞				

諸子辨		四部正譌		古今僞書考	
判別된 書名	判別된 말	判別된 書名	判別된 말	判別된 書名	判別된 말
李衛公問對	後人依託	黃帝	同上		
		風后握奇經	同上	風后握奇經	僞
		力牧	同上		
		豈尤	同上		
		封胡	同上		
		鬼與區	同上		
		項王	僞託		
		武侯十六策	僞		
		武侯心書	僞	心書	僞
		黃石公素書	僞	素書	僞
		孫子(孫綽)	本書는 亡佚되어 後人이 補		
		李衛公問對	僞	李衛公問對	僞
		廣成子	僞		
		無名子	僞		
		黃帝內傳	僞		
		穆天子傳	周穆王史官이 記	穆天子傳	漢後人作
		晋史乘	僞	晋史乘	僞
		楚杌机	僞	楚杌机	僞
		山海經	戰國의 好奇之士가 奇書를 雜錄해 이 漢末의 文士가 荆軻에 依據 增減	山海經	書不僞但非禹伯益作
		燕丹子			
		宋玉子	僞		
		神異經	僞託	神異經	僞
		十洲記	僞託	十洲記	僞
		趙飛燕外傳	僞	飛燕外傳	僞
		魯史記	僞		
		西京雜記	作者未詳 任昉일지도 모름	西京雜記	
		述異記	僞		
		列仙傳	僞	列仙傳	僞
		牟子論	僞		
		洞冥記	僞	洞冥記	僞
		漢武內傳	僞	漢武故事	僞
		拾遺記	僞		
梁四公記	僞				
隋遺錄	僞				
(一名南部) 煙花會景	僞				
開元天寶遺事	僞				
廣陵妖亂志	訕謗之詞 가장 鄙誕·作者는 諸說 있음				
瀟湘錄	託名				
牛羊日曆	嫁名				
龍城錄	嫁名				
續樹萱錄	託名				
白猿傳	託名				
碧雲殿	託名				
雲仙散錄	前六卷은 僞				
清異錄	眞				
艾子世傳	僞				

諸 子 辨		四 部 正 譌		古 今 僞 書 考	
判 別 된 書 名	判 別 된 말	判 別 된 書 名	判 別 된 말	判 別 된 書 名	判 別 된 말
司馬稷直兵法	疑·僞는 아님	鍾呂傳道集 香奩集 魏文詩格 李嶠詩評 二金針傳 歐陽修杜詩注 蘇氏杜詩注 洞極 司馬法 通玄經 潛虛 春秋繁露 周書 紀年	僞 託名 僞 僞 僞 僞 僞 僞 眞·僞가 섞여있음 同右 眞·僞로 疑心됨 訛 眞 眞	司馬法 春秋繁露 汲冢周書 竹書紀年 天祿閣外史 十六國春秋 致身祿 隆平集 於陵子 石申星經 周髀算經 撥沙經 神農本草 秦越人難經 脈訣 博物志 杜律虞志 三經考注 賈誼新書 傷寒論 金匱玉函經 爾雅 韻書 水經 吳越春秋 東坡志林 國語	僞 책은 僞 아님 書 名이 僞 漢後人의 模倣作 後人이 增改함 僞 僞 僞 僞 僞 僞 僞 僞 眞·僞가 섞였음 僞 僞 僞 은 僞아니나 周 公작은 僞아님 約作은 僞아니나 沈 欽作은 僞아님 作者가 未詳 書는 僞作아니나 書名 僞作임 作者未詳

附錄：宋·胡·姚 三家가 論한 古書 對照表

附語：「諸子辨은 純粹하게 僞作을 가려 낸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한 책을 辨할 때 마다 언제나 이 책의 理解를 批評한 것이 있고, 甚至於는 完全히 批評만하여 한 句節도 辨僞의 말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僞作을 가려 내는 데 있어서의 重要한 書籍이다. 그러므로 「四部正譌」「古今僞書考」와 함께 한 表를 만들어 比較하도록 했다. 「諸子辨은 宋濂이 지은 것이요, 「四部正譌」는 胡應麟이 지

은 것이고 「古今僞書考」는 姚際恆이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表는 「宋·胡·姚 三家가 論한 古書對照表」라 이를 지었다.

各 論

앞서 몇 차례에 걸쳐 말한 것은 總論이었다. 이제 말을 잇고저 하는 것은 바로 各論이다. 重要한 僞書를 하나 하나씩 들어서 明白하게 가려 내려고 한다. 그러

나 古書의 範圍는 아주 넓고 古書에 있어 眞僞를 辨別하고 그 年代를 推定해야 할 것이 너무 번다하므로 어떤 限界가 設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지금 二個의 基準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는 책의 性質에 관한 것인바 經部 子部를 範圍로 삼으려는 것이고, 둘째는 책의 時代에 관한 것인바 兩漢 以前을 끊어 限定지으려는 것이다. 兩漢 以前의 經書·子書는 僞書가 가장 많고 그 影響도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들이 考證해야 할 價値가 가장 큰 것이다. 僞造하고 그 僞造를 가려낸 사람들이 참으로 混雜하다. 그래서 몇 部分으로 나누어 말함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이 책이 한 時代의 한 사람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問題가 꼭 많다. 그래서 이 各 部分을 하나씩 審査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이 책의 各部分의 內容을 말해 보고자 한다.

잠간 乾卦를 例를 들면, 맨 처음에는 세계의 가로 지른 획(譯註: ≡劃)이 있을 뿐이었으니 이는 八卦중의 하나이다. 뒤에 세계의 가로 지른 획에 다시 세계의 가로지르는 획(譯註: ≡)를 덧붙였으니 이것은 六十四卦의 하나이다. 이 하나씩 가로 지르는 획을 잴라 불렀고, 여섯개의 잴가 싸여진 것이 卦이다. 乾卦六爻의 아래에 있는 『乾元亨利貞』이란 말을 뒷 사람들은 卦辭라 불렀고, 卦辭 아래에 있는 九는 潛龍이라 하여 勿用이며 九二는……, 九三은……, 九四是……, 九五는……, ……, 上九는……, 用九는 群龍이 無首함을 보이므로 吉하다 라는 말을 後人들은 爻辭라 불렀다. 六十四卦를 모두 합한 것이 이른바 『易經』이다. 이밖에 또 열가지의 文辭가 있어 이를 가지고 易經으로 解釋해 내는 것이다. 彖上·彖下·象上·象下·繫辭上·繫辭下·文言·說卦·序卦·雜卦를 後人들은 十翼 또는 易傳·易大傳이라고 總稱하고 있다. 이렇게 混雜한 책은 당연히 한 時代의 한 著者が 著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들이 다시금 易의 篇卷의 順序를 考察해 보면 『易은 꼭 秩序가 없다』는 感想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漢書藝文志에는 『易經 十二篇은 孟·梁·丘 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였고, 顏師古의 註에는 『上下經 및 十翼이므로 十二篇이라 하였다. 이것은 最初의 篇數로서 十翼은 各自가 한篇을 이루는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古書의 注解는 꼭 本書와 分離되고 있으니 十翼도 처음에는 各卦에 붙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 魏高貴鄉公傳에 한마디 웃은 말이 있는데 이로서 彖·象이 兩漢 以前에는 獨立된 한 篇이었음을 證明할 수 있다. 高貴鄉公이 易博士 淳于俊에게 물기를 『孔子는 卦·象을 짓고, 鄭玄이 注를 지었는데 비록 聖人과 賢人의 差異는 있으나 經義를 解釋한 것은 同一하다. 지금 彖·象은 經文과 連結되지 않았는데 注는 連結되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물자 淳

于俊이 對答하기를 『鄭玄이 經에 彖·象을 합한 것은 學者들로 하여금 쉽사리 찾아 보게 하기 위해서였읍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彖·象은 처음에 各卦 아래에 連結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文言도 원래 獨立된 한 篇을 이루어 있던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三國時代의 王弼에 와서 비로소 乾卦와 坤卦 아래에 나누어 부치게 됐다. 從來 唐나라 孔穎達이 지은 正義는 王弼本을 썼으나 隋書經籍志 以後로는 各種 書目이 실린 易의 卷數는 모두 틀린다. 지금 通行되고 있는 책 ——十三經注疏本——의 篇卷의 차례는 아직도 王弼의 것과 같은 것이다. 彖·象을 大象·小象·大象·小象으로 나누어 만들어 졌다. 大象·大象은 卦辭를 풀이하고 小象·小象은 爻辭를 풀이하고 있는데 모두 各卦의 卦辭·爻辭의 아래에 붙여져 있고 또한 文言을 乾坤 二卦 아래에 놓고 있다. 全書는 모두 經의 方面이 六卷인데 卦爻·卦辭·大象·小象·大象·小象·文言 등을 包括하고 있으며 傳의 方面은 五卷인데 繫辭上·繫辭下·說卦·序卦·雜卦등이 各各 한卷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漢志의 十二篇과 懸隔한 差가 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易의 本來의 차례와 現在의 內容을 明白히 말함으로써 비로소 各 部分의 眞僞와 年代를 考證할 수 있다. 지금 于先 前人들의 見解는 어떠 했는가를 살펴 보자 첫째 問題는 卦는 누가 그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람들은 모두 伏羲가 그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說일뿐, 實證을 잡을 수는 없다. 처음에는 다만 八卦가 있었으나 後代에 와서 어떤 사람이 八卦를 겹쳐서 六十四卦로 만들었다. 이와같이 卦를 겹친 者가 누군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見解가 있다. 司馬遷은 周文王이라 말하였고. 鄭玄은 神農이라 말하였고. 孫盛은 夏·禹라 말하였다. 卦辭와 爻辭의 作者에 대해서는 아직 定論이 없다. 繫辭에 이르기를 『易이 興한 것은 中古에서인가?』 『…殷의 末世로서 周의 盛德에서인가?』 文王이 紂와 더불어 일(作戰?)할 때를 당해서인가?』 『易을 만든 者는 憂患이 있었서일까』라고 하여 이미 確定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疑問詞를 썼던 것이다. 後人들은 그런데 이 몇 句節에서 推測하기를 卦辭와 爻辭는 모두 周文王이 만든 것이라 하였고 馬融·陸績 등은 爻辭에 文王以後의 일이 記錄되어 있으므로 周公의 지음이라 여겼다. 文王은 다만 卦辭만을 지었을 뿐이다. 彖·象 以下의 十翼은 司馬遷이 『孔子晚而善易序彖象繫說卦文言』이라 말한 이후 後人들은 모두 孔子의 지음이라고 말하게 됐다.

내 생각으로는 伏羲란 사람의 存在 여부는 疑問이니 八卦를 그가 그렸다고 確定지을 수 없다. 다만 八卦를 古代의 象形文字로 보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믿을 수 있

는 것이다. 우리가 坎·離 두 卦를 보면 곧 알 수 있다. 坎卦는 ☵로 하여 물(水)을 상징하고 있는데 가장 처음의 篆文의 「水」字도 ☵로 되어 있다. 그것이 뒤에 와서 쓰기 편케 하기 위해서 ㄱ로 고쳐 만들었는데 본래의 뜻은 잃게 됐다. 離卦는 ☲로 하여 불(火)을 象徵하고 있는데 篆文에서는 火로 되어 있다. 이것도 先後源流關係가 있는 것이다. 八個의 象形文字를 取하여 占卜用으로 삼은 것은 어느 時代에서 시작된 것인가 하는 점은 이미 考證해 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늦어도 殷代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發達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殷墟에서 發見된 卜辭를 보아 곧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問題되는 것은 六十四卦는 누가 겹쳐 만든 것인가 하는 것이다. 殷墟에서 發見된 卜辭에는 六十四卦의 名稱이 없다. 아마도 繫辭는 殷·周間에 된 것이라 보는 것은 얼마쯤 믿을 수 있다. 後人들은 이로 인하여 卦를 겹친 일을 周文王에게 連關짓고 있다. 비록 伏羲나 神農에게 연관짓는 것보다는 좀더 좋을 것이나 완전히 疑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卦辭와 爻辭에 대해서는 後人들 가운데 어떤자는 文王 한 사람의 作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자는 文王이 卦辭를 짓고 周公이 爻辭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똑 같이 證據가 없는 일이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卜辭는 殷朝의 後半期의 作品인데 六十四卦와 卦辭·爻辭가 없으며, 左傳은 春秋戰國時代의 作品으로서 그가 根據한 바는 魯史記인데 벌써 卦名과 卦辭·爻辭를 많이 引用하고 있으며 時代도 딱 이르고 地域도 딱 넓으니 殷末로부터 春秋에 이르는 동안에 八卦가 겹쳐져서 六十四卦가 되고 또 卦辭와 卜辭가 덧붙여 졌으며 徐徐히 發明應用되어 널리 傳播된 것이다. 發明의 時期는 대략 아무래도 周初이겠지만 發明한 人物은 周文王이나 周公으로 確定지을 수 없다.

十翼은 易의 重要 部分인데 도대체 누가 지었는가 하는 점은 알 수 없다. 史記孔子世家에 『孔子晩而喜易序彖繫象說卦文言』이라는 一句가 記錄된 以後로부터 後人들은 모두 孔子의 作이라 믿게 되었다. 實은 이 一句는 文法上 여러가지로 解釋 할 수 있다. (A) 「喜」字를 動詞로 보고 「易序彖繫象說卦文言」은 모두 並列되는 名詞로 보는 경우: 이틀 名詞는 모두 「喜」字의 目的格이 된다. 孔子는 이런 것들을 좋아 했다는 것에 不過한 것이다. 무엇을 지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B) 「易」字 아래에 句讀를 찍고 「序」字를 動詞로 보고 『彖繫象說卦文言』을 名詞로 보는 경우: 그러면 孔子는 「彖繫象說卦文言」에 序를 쓴 것에 不過하며 序卦와 離卦는 모두 孔子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게 된다. (C) 喜·序·繫·說·文 다섯 字를 모두 動詞로 보는 경우: 그러면 孔子는 象을 序, 象은 繫하고, 卦를 說하고, 言

은 文한 것에 不過하며, 繫辭·序卦·雜卦는 모두 孔子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게 된다. 이러한 세가지의 解釋 방법은 모두 通하지 않는 점이 있고 또 前人들의 見解와 衝突하는 점이 있으니 바로 解決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결을 더 나가서, 孔子와 易과는 도대체 무슨 關係가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重大한 懷疑를 하지 않을 수 없다. 論語는 孔子에 대하여 가장 믿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런데 孔子가 易의 十翼을 지었다는 말은 전혀 없다. 다만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나에게 數年을 가하여 五十에 易를 배운다면 大過가 없을 수 있겠다)란 一章에 易字가 나올 뿐이다. 司馬遷의 史記에서 『孔子가 易을 좋아했겠다』라고 한 것은 아마 이로부터 推出해 낸 것이리라. 그런데 實은 이 一章은 根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漢末의 鄭玄이 본 論語에 依據하면 이 一章에는 「易」字가 없는 『加我數年, 五十以學, 亦可以無大過矣』(나에게 數年을 가하여 五十에 배운다면 또한 大過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다. 文法上이나 文義上으로 볼 때 「亦」字가 「易」字에 비해 더 좋다. 萬一 古本의 論語가 정말 「亦」으로 되어 있고 「易」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論語에는 필경 「易」에 대해서는 한 字도 言及되지 않은 셈이다. 이 점이 우리가 孔子가 十翼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 아닌가 회의하는 첫째 理由이다.

또한 孟子는 한 平生 孔子를 誦法 해 온 사람인데 그의 책속에는 孔子가 十翼을 지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孔子가 春秋를 짓자 亂臣賊子들이 두려워 했다」라는 것은 그가 恒常 에기하는 말이다. 孔子가 易을 지었는데 孟子가 도리어 한마디도 이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을리는 없는 것이다.

이점이 우리가 孔子와 十翼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 아닌가 懷疑하는 둘째 理由이다.

더우기 우리들로 하여금 懷疑心을 擴大시키고 堅固시키는 점이 있다. 晉書 束皙傳에 이르기를 『太康二年에 汲郡人 不準이 魏襄王墓 一或者는 安釐王冢이라고도 한다—를 盜掘하여 數十車의 竹書를 얻었다. … 그 易經 두 篇과 周易의 上·下經과는 같으며, 易繇陰陽卦二篇과 周易과는 大略 같은데, 繇辭는 틀린다. 卦下易經의 一篇은 說卦와 비슷하나 틀린다. 公孫段의 두 篇은 公孫段과 邵陟이 易을 論한 것이다.』라고 했다. 萬一 汲冢에 易經이 없었더라면 魏王이 易을 좋아하지 않았던 까닭에 易을 殉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들은 事實이 이와 같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汲冢에는 分明히 易經이 있었는데 왜 十翼은 없었는가 晉書에서 말하는 「周易」 두 字는 아마 十翼을 가리키는 듯 한데 汲冢의 易繇陰陽卦 두 篇은 단지 『周易』과 大略 같을 뿐이며 거기에 繇辭는 또 같지 않으니 당

연히 現在의 十翼의 어떠한 部分도 아닌 것이다. 卦下 易經의 體裁는 비록 說卦과 비슷한데 晉書에서는 같지 않다고 別途로 말하고 있으니 當然히 역시 現在의 說卦가 아닌 것이다. 魏는 子夏가 經을 傳한 나라이고 魏襄王은 子夏와는 距離가 멀지 않은 사람이다. 萬一 孔子가 十翼을 만들었다면 子夏는 이것을 傳치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魏襄王은 이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汲冢에 公孫段의 書는 있는데 도리어 孔子의 十翼은 없는가? 비록 十翼이 盜掘하던 사람에 의해서 등불로 혹시 불살려졌다 하더라도 『十翼은 魏襄王 뒤에 나왔을런지도 모른다』는 假定은 아무래도 우리가 成立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孔子와 十翼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懷疑하는 셋째 理由이다.

위에서의 두 節(譯註: 즉 첫째와 둘째 理由 및 셋째 理由)은 대체적으로 十翼을 懷疑한 것이다. 지금 잠시 說卦·序卦·雜卦에 대해서만 말해 보고자 한다. 本來 史記 孔子世家에는 雜卦에 대해서 提起한 바가 없었다. 雜卦는 自然 孔子의 作이 아니다. 序卦에 대해서는 비록 提起는 되었지만 다름 「序」 한字였을 뿐이었다. 「序」字를 動詞로 쓴 것인지 名詞로 쓴 것인지 조차도 벌써 問題가 된다. 說卦에 대해서는 이미 史記에서 明白히 얘기되고 있으니 아마 疑問이 없을 것도 같다. 그렇지만 隋書經籍志에는 『秦의 焚書가 있었을 무렵 周易만은 卜筮의 책이라는 理由로 남아 있을 수 있었으나 說卦 三篇은 잃었는데 後에 河內의 女人이 이를 얻었다』라는 記錄이 있다. 問題는 다시 發生되었으며 또한 複雜하게 됐다. 隋書經籍志에서 말하기는 說卦에 三篇이 있다고 했는데 現在는 一篇이 있을 뿐이다. 그 三篇은 序卦와 雜卦를 합쳐서 말한 것일까 아니면 古代의 說卦에는 原來 三篇이 있었던 것일까? 또 이 河內의 女人은 姓과 名이 밝혀져 있지 않고 그가 책을 얻은 時代와 事蹟이 전혀 根據가 없으니 이처럼 來歷이 曖昧한 것을 우리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위의 말에 대해서 結論을 말한다면 漢書藝文志의 易經 12篇은 汲冢에서 發見된 諸經이라 하지 않고 있으니 역시 現在의 通行本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十翼은 大略 戰國時代의 後半期에 나온 것으로 아마 아주 작은 一部는 孔子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며 또 一部分은 漢代 後에 비로소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易經은 그 自體가 두 篇으로 되어 있다 함은 앞에서 이미 잘 가려낸 바 있다. 지금 古來로부터 十翼을 識別하는 源流에 대해서 大略 말하고자 한다.

最初에 十翼의 一部分은 孔子의 作이 아니라고 懷疑했던 사람은 北宋의 歐陽修였다. 그는 易童子問이란 책을 만들었는데 繫辭·文言·說卦·序卦·雜卦는 孔

子의 作이 아니라고 根本적으로 否認했다. 그의 그 理由는 꽤 많다. 첫째, 이들의 말은 모두 번거로우며 恒常 말은 조금 틀리지만 그 大意는 같으니, 萬一 本來부터 諸字가 한 말로서 前人들이 經을 解決하는데 썼던 것인데 精選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상할 바 없으나 萬一 한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결코 이와같이 번거롭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고, 또 萬一 孔子의 作이라고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孔子의 文章들 例컨대 象象·春秋같은 것은 말이 簡潔할 수록 뜻이 더욱 깊은 것이니 결코 이와 같이 번거롭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둘째, 이들의 말은 恒常 自家矛盾에 撞著되는 것으로 常情에 맞지 않는 것이다. 人間의 常情은 恒常 다른 사람들이 그의 偏見을 攻擊할까 두려워하며 그의 著書를 後世에 남기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는데 또한 自身이 矛盾되는 말을 하여 世人이 그의 著를 믿지 않게 할 理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當然히 사람의 말이 아니다. 더구나 孔子가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셋째, 이들의 말은 孔子의 平生의 말과는 같지 않다. 孔子의 말은 論語에 記錄되어 있는 것이 가장 믿을만 하다. 論語를 보면 孔子가 말씀하되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을까?』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鬼神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繫辭에는 도리어 『事物의 始初를 研究하여 事物의 終末에 反復하면 (始終吉凶이 모두 망라 된다. 이 까닭에) 死生의 (數)를 안다.』 『精氣가 모여서 萬物을 이루고 精氣가 떠나서 改變이 생긴다. 이 까닭에 鬼神의 正상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두가지를 比較해 보면 아주 크게 틀린다. 우리들은 論語를 믿는다. 論語는 믿을 수 있는 價値와 證據가 있다. 自然 繫辭 등 篇은 孔子의 作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이 몇 篇은 恒常 普通사람들의 正상을 가지고 聖人의 경지를 이루고 으면서 그 錯誤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 즉 『知者는 象辭를 보면 (有益함을) 思慮함이 過半이 된다.』 『八卦는 象으로써 告하고 爻·象·은 情으로써 言한다.』는 것이 모두 그렇다. 다섯째, 이 몇 篇은 乾·坤의 策으로서 三百六十當期之日을 말하나 七八九六數는 알지 못하고 乾坤은 定策이 없다 한다. 이것은 筮人들도 모두 아는 것인데 作者는 도리어 알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左氏가 春秋를 傳할 때에는 세상에서 아직도 文言이 孔子의 作이라고 認定하고 있지 않으니 文言은 孔子의 作이라고 말하는 것은 後人들의 揣測한 말이지 결코 眞相이 아니라 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이 몇 篇에는 『누가 말하기를』(何謂) 『孔子가 이르기를』(子曰)이란 文句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分明히 講師가 講義하는 말투인 것이다. 어찌 孔子의 말일 수 있겠는가

여덟째, 說卦와 雜卦는 分明히 筮人의 책인 바 이것은 더욱 識別해 낼 必要도 없는 것이다.

南宋에 이르자 葉適이 記學習言을 지었는데 第4卷에서는 전적으로 繫辭以下와 象象의 不合理함을 가려 내고 繫辭와 그는 孔子의 作이 아니었음을 斷定하고 있다. 또한 『上下의 繫辭와 說卦는 아무렇게나 말한 것이다. 道에 어긋남이 비록 심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發明하는 것이 있다. 오직 序卦만은 가장 內容이 알은 것으로 易에 害롭다』고 말하고 있다. 그뒤 趙汝談이 南塘易說을 지어서 전적으로 十翼은 孔子의 作이 아니라 함을 가려 내었다. 歐陽修와 葉適에 比해서 더욱 徹底한 것이지만 아깝게도 傳해지지 않고 있다. 清朝에 이르러 姚燮恒이 지은 易傳通論도 易傳은 孔子의 作品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으나 이 책도 아깝게 傳해지지 않고 있다.

以上 各說에 依據하면 象象만 아직 아무도 孔子의 作品이라는 것을 否認하지 않았을 뿐 그 나머지는 거의 모두 孔子와는 아무런 關係가 없다. 그러면 그 나머지 各篇은 도대체 어느 學派의 學說인가 내 個人的 意見으로는 繫辭·文言 以下の 各篇은 孔子의 門下生들이 道家와 陰陽家의 影響을 받아서 만들어 낸 책이다. 繫辭·文言은 더욱 確實하니 그 속에는 『子曰』이라는 말이 許多하다. 萬一 孔子의 作이라면 어찌 스스로를 『子曰』이라 할 理가 있겠는가. 文言속에 이러한 말이 있다.

『初九는 「潛龍勿用(숨은 龍이라 쓸데 없다)」이라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子曰：『龍德而隱者也…』(龍은 德이지만 숨은 것이다)

이것은 分明히 問答의 體裁이며 당연히 著述體는 아닌 것이다. 이것은 孔子의 門下生이 記錄한 것이라 함을 足히 알 수 있는 것이다. 莊子 天下篇에는 『易으로서 陰陽을 말(道)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易의 卦辭·爻辭에는 결코 陰陽 二字가 없고 象象에 비로소 약간 나올 뿐인데 繫辭·文言에는 온통 이것으로 가득 차다. 陰陽의 說은 鄒衍에서 비롯된 것이니 繫辭는 鄒衍一派의 影響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있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儒家에서는 「鬼神」이라든가 「生死」 따위의 말은 하지 아니했고 玄學에 關連되는 意味도 없었다. 그런데 繫辭·文言은 그렇지 않다. 深奧한 哲理가 每樣 辭意 사이에 包含되어 있으니 이것은 分明히 道家의 影響을 받고 나서 비로소 생긴 것이다. 孟子는 仁義를 말하였는데 從前에는 仁義를 말한 者가 결코 없었다. 繫辭·文言에는 도리어 몇번이고 言及되어 있으니 이는

그 作者가 孟子의 學說에 대해서도 研究한 바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理由들은 繫辭·文言은 道家와 陰陽家가 이미 盛한 以後 即 孟子 뒤에 나왔다는 것을 足히 證明할 수 있다.

그리고 說卦·序卦·雜卦가 설사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역시 繫辭·文言 뒤에 이룩된 것으로 이는 모두 孔子와는 아무런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것이다. 아마 孔子와는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은 다못 象象이 있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象象은 모두 孔子 自身이 만든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아직 이에 대한 有力한 反證을 못 얻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만 象象의 말은 모두 簡單하고 古拙함이 마치 論語와 비슷하며 거기에 包含된 意義도 論語와 衝突되는 곳이 없다. 陰陽을 이야기한 말이나 玄學性을 띤 말은 極히 적으니 아마도 陰陽家나 道家의 影響을 받지 않은 듯 하다.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證據를 찾기 以前에는 孔子의 作品으로 認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易 그 自體는 原來 哲學的인 意味는 없이 다만 卜筮의 書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現在의 各 廟宇에 있는 籤筒¹⁹⁾와 같은 것이다. 卦辭나 爻辭는 籤위에 적혀 있는 判語로서 이것으로서 吉凶을 가려내는 것이다. 물론 各地에서 쓰고 있는 籤筒은 반드시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籤위에 쓰인 判語도 반드시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左傳에 引用한 繇辭는 今本의 易經과는 合致되지 않는 곳이 많으며 汲冢에서 發見된 易繇·陰陽卦 二篇의 繇辭도 今本의 易經과는 合致되지 않고 있다. 今本의 易經은 當時의 數 많은 種類 가운데 다행히 殘存된 一種에 不過하다. 後人들의 思想이 進化되자 여기에다 哲學의 色彩를 加味시켰으므로 象象 繫辭·文言 등 篇이 陸續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不幸히도 史記에 『孔子는 晩年에 易을 즐겼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後人들은 곧 哲學的인 意味를 지닌 象象·繫辭·文言과 엉망진창으로 된 說卦·序卦·雜卦를 모두 孔子의 이름에다 갖다 붙였으며 이를 孔子를 研究할 수 있는 重要한 資料라고 認定하게 됐다. 그러면서 繫辭以下는 孔子와는 無關하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다. 繫辭·文言은 그 自體의 價値가 있는 것으로 原來 孔子에게 依託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易의 意義를 解釋한 것이 맞는가 아니 맞는가 하는 것과 孔子의 見解와 合致되는가 아니 되는가 하는 것과는 우리는 상관치 않아도 된다. 거기에는 精密한 말씀이 許多한데 그것은 確實히 中國 哲學의 重要한 產物로서 從前에 比해 훨씬 進化된 것이다. 우리들은 한편 『孔子가 十翼

釋註¹⁹⁾ 中國의 寺刹에는 혼자서 간단히 걸쳐 볼 수 있는 籤筒가 備置되어 있다. 걸을 한 뒤 마치 박을 쪼개는 두 쪽배지와 같은 곳에 葉錢을 넣고 절령절령 혼든 뒤에 혼든 葉錢을 床에 떨구고 난 뒤 엮어지고 다배진 數를 보고 이에 따라 占卦를 찾아 읽는다.

을 믿었다』는 옛말을迷信해서도 안되지만 또 한편 繫辭·文言이 孔子의 작이 아니라 하여 곧 無價値한 것이라고 해서는 못쓴다. 우리들은 八卦를 그린 것은 上古에 六十四卦로 걸친 것과 卦辭·爻辭를 만든것은 周初에 卦辭·象辭로 만든 것은 잠시 孔子에게 繫辭·文言은 戰國 末年에 說卦·雜卦는 戰國 秦漢時代에 각각 歸屬시키어 이로써 各 時代의 心理·宇宙觀·人生觀을 觀察한다면 모두 價値있는 것이다.

易經과 易傳을 除外하고도 아직 『連山·歸藏·周易』의 問題가 있다. 周禮에서 이 세가지 易의 이름을 예기한 以後 漢書藝文志에서는 뒤 連山·歸藏이라는 書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隋書經籍志에서는 도리어 歸藏 13卷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歸藏은 漢初에 이미 없어졌으나 晉中經에 있는데 다만 卜筮만을 실었을 뿐 聖人의 뜻으로 된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唐나라 때의 사람들 부터 벌써 참으로 있는책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連山에 대해서는 더욱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 다만 隋의 劉炫이 賞金을 타려고 一部를 僞作하였지만 當時에 이미 發覺되었다. 이 두 책은 아직도 있지만 우리들은 여기에 속아서는 안된다. 前人들은 『周易』의 『周』字를 「나라周」字로 看做하였기에 周나라에 易이 있었다면 夏·商에도 또한 易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周禮에 『夏連山·歸藏』이란 말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實은 『周易』의 『周』字는 「두루주」字의 뜻이지 결코 朝代의 이름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明白히 해야 한다.

北宋 以後 易을 말하는 사람은 同時에 반드시 河圖·洛書와 太極圖를 말하고 있지만 그 以前에는 없던 것이다. 다만 繫辭에 『黃河에서 그림(즉 河圖)이 나오고 洛水(黃河支流)에서 책(즉 洛書)이 나왔다』 『易에는 太極이 있고 이것은 兩儀를 낳았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宋人들은 無에서 有를 만드는 格으로 河圖·洛書·太極圖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實은 우리가 한번 생각 해 보기만 한다면 五代의 道士들이 된 재주이지

결코 儒家의 것이 아니라 함을 알 수 있다. 最初에 陳搏이 易龍圖를 著述하여 種放에게 傳해 주었고 李溉는 許堅에게 傳해 주었고 許堅은 范鏗昌에게 傳해 주었고 范鏗昌은 劉牧에게 傳해 주었고, 種放은 여기서 易數 鈎隱圖를 지었는데, 이것은 完全히 河圖·洛書를 가지고 易을 解說한 것이 있다. 南宋에 이르러 朱熹도 대단히 이 說을 迷信하였는데 그의 易學啓蒙 第一篇은 이 圖書에서 根本된 것이다. 이로부터 數百年間 朱熹가 學界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도 敢히 이를 反駁하지 못하고 모두들 河圖·洛書·太極圖를 深奧·神秘한 學問으로 看做하면서 줄곧 淸初에 까지 이르렀다. 淸初에 비로소 몇몇 大師들이 서로 約束이나 하듯이 論難을 이르렀다. 그 첫째가 黃宗羲로서 그는 易學象數論을 지었고, 둘째가 黃宗炎으로 그는 圖書辨惑을 지었고, 셋째가 毛奇齡으로 그는 河圖洛書原舛篇을 지었고, 넷째가 李塨으로서 그는 周易傳註를 지었고, 다섯째가 胡渭로서 그는 易圖明辨을 지었고 여섯째가 張惠言으로서 그는 易圖條辨을 지었다. 이들은 各各 充分한 理由를 들어 宋人들의 附會를 밝히고 河圖·洛書·太極圖는 本來 깊은 뜻이 없는 것임을 證明하였다. 그 중에 특히 「易圖明辨」이 가장 透徹하고 廣範하였다. 그들은 결국 數百年間 烏煙瘴氣에 묻혀있던 誤謬를 打倒한 것이다. 淸初에 朱子學이 盛行되었을 때 이러한 作業은 實로 重要한 것이었다. 지금은 이 問題가 이내 決定되었으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면 足하다.

이 밖에 또한 子夏의 易傳과 焦氏의 易林 두 책은 모두 僞書이다. 漢書藝文志에는 子夏의 易傳이 없는데 隋書經籍志에 비로소 있다. 宋나라 陳振孫이 이미 그것을 僞作이라 하였고 明나라의 胡應麟과 淸나라의 姚際恒도 모두 일찌기 다시금 그것을 證明했다. 焦氏의 易林이 僞作인 것은 淸初의 顧炎武에 이르러 비로소 發見했으며 姚際恒도 다시금 그것을 證明하였다. 지금은 모두 問題가 없다.

(11面에서 계속)

現存된 5~6世紀의 寫本을 보면 비록 찢어지고 잘라졌어도, 그렇지만 좀이 侵蝕하고 脫丁한 現象이 없는 것은 賈思勰이 말하고 있는 防虫과 풀을 밟는 方法이 實際 有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中國에서는 먼 5世紀 以前에 이미 紙製의 書物을 保護하는데 大端히 좋은 方法이 實行된 것으로 思料된다.

V. 맺는 말

以上에서 前漢의 高祖가 長安에 入城하여 秦의 遺書를 蒐集하던 때 부터 南朝의 梁까지의 圖書館制度和 書籍形態의 變遷에 對한 것을 考察하였다.

첫째 前漢 武帝時의 藏書制度 即 이제 이를 要略하던 麒麟閣과 天錄 石渠石室 다시 말하여 內閣과 外閣制는 後代에 와서도 繼承되었음을 알았다.

둘째는 歷朝가 起伏하는 가운데서도 그때 書籍은 爆滅되었으나 天下의 遺書를 收集하여 새로운 內容의 圖書가 生産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儒學은 점차 그 기틀을 確固히 하여 中國思想의 源流가 되었다.

셋째로 從來에는 書籍의 材料가 竹筒本이던 것이 蔡倫이 製紙術을 改良함으로써 종이 사용이 점차 一般化되어 南朝에 이르러는 書冊이 代(竹)나 나무이던 것이 종이로 옮겨 간다는 結論에 到達한다.